

# 한·일 영화의 감성 비교

- 『용의자X의 헌신』의 영화적 재현을 중심으로 -

주 혜 정\*

(e-mail : makdongii@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한·일 감성의 영화적 재현 비교 |
| 2. 『용의자X의 헌신』의 문학적 평가   | 3.1. 플롯전개와 감성        |
| 2.1. 히가시노 게이고의 문학 특징    | 3.2. 제도에 의한 감성 형성    |
| 2.2. 『용의자X의 헌신』의 문학적 위치 | 3.3. 문화적 감성으로서 '외로움' |
|                         | 4. 맺음말               |

키워드 : 感性(Emotion), 文化(Culture), 再現(Representation), 東野 圭吾(Higashino keigo), 容疑者X의 献身 (Suspect X), 容疑者X(Prefect Number)

## 1.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용의자X의 헌신(容疑者Xの献身)』을 원작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제작된 영화를 통해서 양국의 감성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상실의 시대』는 원제가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이다. 1987년 하루키가 일본에서 발표한 후 한국에서도 6종류의 번역본이 출판되었는데, 그 중 유유정이 번역한 『상실의 시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sup>1)</sup> 유독 ‘상실의 시대’라고 번역한 책이 인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강사, 일본문화학

1) 무라카미 하루키의 『ノルウェイの森』의 번역 작품은 1989년 7월 정성호 역 『개똥벌레의 연가』(성정출판사), 1993년 2월 이미라역 『노르웨이의 숲』(동하출판사), 1993년 6월 김난주 역 『노르웨이의 숲』(모음사), 1997년 9월 허호 역 『노르웨이의 숲』(열림원) 등으로 출판되었다.

한광수(2002)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노르웨이 숲(ノルウェイの森)」, 『국제문화연구』20권, 청구

기가 있었던 이유는 당시 한국사회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실’이라는 단어가 허무와 고독이라는 감성을 대변해 주면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번역의 작업에서 한 나라의 언어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감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하루키 열풍 이후, 일본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중 2000년대부터 주목받는 작가가 나타났는데 바로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이다. 한국에서는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많은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현재 일본추리소설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여 년 전 하루키의 문학이 한국 사회에서 ‘상실’이라는 감성으로 공감되었다면, 현재 히가시노 게이고의 문학은 현대 사회에서 퇴색되어 가는 ‘사랑’, ‘헌신’과 같은 감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적인 작품 『용의자X의 헌신』을 원작으로 영상매체 전환이 되면서 나라별로 서로 다른 감성들을 어떻게 재현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134회 나오키상(直木賞)의 수상과 함께 여러 나라에 번역·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매체 전환으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 작품은 2008년도에 일본을 시작으로 2012년도에 한국에서 최근 2017년에는 중국에서까지 영화로 제작되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한국에서 연극으로도 제작되었다. 이처럼 같은 원작으로 나

대학교 국제협력연구원, 참고.

- 2) 현재까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관심이 보여진다. 한국의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으로 양관수(2013) 「현대소설에 나타난 낯설게 하기 기법 연구 : 중편소설 「길 잃은 돌맹이」의 내편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논문, 남상현(2016), 「일본의 소년범죄소설 연구 : 소년법제정 이후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논문이 있다. 이 논문들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그의 작품이 언급되어 있다. 학술연구로서는 김동혁(2016) 「소설 속 시공간에 관한 환상성의 역할 고찰 - 『나미야 좌화점의 기적』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74 한민족어문학회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서 나타난 환상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일본의 경우는 狩谷新(2012) 「メディアミックスによる小説世界の変化 : 東野圭吾の主人公描写」 大分県立芸術文化短期大学研究紀要, 大分県立芸術文化短期大学, 増満圭子(2006) 「現代文学が語るもの東野圭吾 『分身』論」 東洋学園大学紀要, 東洋学園大学, 堀江珠喜(2016) 「東野圭吾と猫」 大阪府立大学紀要, 大阪府立大学, 和田勉(2013) 「東野圭吾論」 九州産業大学国際文化学部紀要 第55号, 九州産業大学. 難波江和英(2012) 「『容疑者Xの献身』—セクシュアリティの言説という畀」 神戸女子大学紀要, 神戸女子大学 등이 있다.

라별로 제작된 영화는 각 나라의 문화에서 형성된 감성을 비교·연구하기 좋은 대상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X의 헌신』의 문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영화적 재해석을 고찰함으로써 사회·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상이한 감성의 대중적 호소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양국의 문화와 감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용의자X의 헌신』의 문학적 평가

### 2.1. 히가시노 게이고의 문학 특징

추리소설은 서양에서 근대 문학이 발달된 이후 소설장르로서 생산되었다. 1841년 에드거 알렌 포(Edgar Allen Poe)의 『모르그가의 살인』이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추리소설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추리소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비서양에서도 서양 추리소설이 번안되면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한국은 1910년대부터 추리소설이 번안되어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일본에서 번역된 추리소설을 중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추리소설 흐름을 크게 구분지어 본다면, 1880년대부터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와 마루테이 소진(丸亭素人)이 외국 추리소설을 왕성하게 번역했던 시대와 1920년대 이후는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亂歩)가 활약한 시대, 1950년대 이후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가 활약한 시대로 각각 나눌 수 있다.<sup>4)</sup> 그리고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히가시노 게이고가 제3기에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1958년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나 오사카 부립대학 전기

3) 한기연(1992) 「松本清張 推理小説의 特徵」 『日本研究』 7권,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153-154

4) 일본에 처음으로 추리소설이 소개된 1888년부터 지금까지 제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888년부터 1902년까지 약 5년간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 : 1862-1920), 마루테이 소진(丸亭素人 : 1864-1913) 등이 왕성하게 외국의 추리소설을 번안하던 시대이다. 제2기는 1923년부터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亂歩 : 1894-1965)가 활약하던 1950년대 중반까지이다. 제3기는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 1905-1992)의 처녀작 『張込み』가 발표된 1955년부터 지금까지로 시대구분을 지을 수 있다. 앞의 책, 한기연(1992) p.158 참조. 한기연은 2기와 3기는 일본의 추리소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에도가와 란포와 마쓰모토 세이초를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도 한기연의 시대구분과 같은 의견으로 구분하였다.

공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전자회사 ‘덴소사(日本電装株式会社)’에 입사해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소설을 써 나갔다. 1985년 『방과후(放課後)』라는 작품으로 제31회 에도가와 란포상을 수상하여 이를 계기로 전업 작가가 되었다.<sup>5)</sup> 이러한 그의 이과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은 유독 과학적 논리 추리 전개를 펼쳐나가는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의 작품은 소외된 계층을 주요 소재로 하여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지만, 그가 다루는 사건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성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판매부수가 높은 작품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跡)』은 등장인물이 강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판타지가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감성의 전달은 탄탄한 독자층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현재 2017년 『멋진 일본인(素的な日本人)』까지 중단편 소설 85여권이 출판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2000년도 초반부터 한두 권이 번역·출판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70여권이 소개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시리즈물이 상당한 대부분 추리소설의 장르이지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같이 추리소설의 장르가 아닌 작품들도 있다. 그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볼 수 있다.

### <표 1> 히가시노 게이고의 시리즈별 작품 분류6)

분류	작품명
가가 교이치로 형사 시리즈 (加賀恭一郎シリーズ)	졸업:설월화 살인게임(卒業—雪月花殺人ゲーム)·잠자는 숲(眠む森)·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どちらかが彼女を殺した)·악의(悪意)·내가 그를 죽였다(私が彼を殺した)·거짓말, 딱 한 개만 더(嘘をもうひとつだけ)·붉은 손가락(赤い指)·신참자(新参者)·기린의 날개(麒麟の翼)·기도의 막이 내려갈때(祈りの幕が下りる時)
갈릴레오 시리즈 (ガリレオシリーズ)	탐정 갈릴레오(探偵ガリレオ)·예지몽(予知夢)·용의자 X의 헌신(容疑者Xの献身)·갈릴레오의 고뇌(ガリレオの苦悩)·성녀의 구제(聖女の救済)·한여름의 방정식(真夏の方程式)·허상의 도구사(虚像の道具師)·금단의 마술사(禁術の魔術師)
덴카이치 다이고로 시리즈 (天下一大伍朗シリーズ)	명탐정의 규칙(名探偵の掟)·명탐정의 저주(名探偵の呪縛)

5) <https://ja.wikipedia.org/wiki/> 참조

6) 표에서 한국에서 번역된 책들은 출간된 책의 제목으로 표기하였으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책은 필자가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나니와 소년탐정 시리즈 (浪花少年探偵団)	나니와 소년탐정단(浪花少年探偵団)·나니와 소년탐정단2(浪花少年探偵団2)
마스카레이드 시리즈 (「マスカーレード」シリーズ)	마스카레이드 호텔(マスカーレード・ホテル)·마스카레이드 이브(マスカーレード・イブ)
유머 시리즈 (笑小説)	괴소소설(怪笑小説)·독소소설(毒笑小説)·흑소소설(黒笑小説)·왜소소설(歪笑小説)
스키장 시리즈 (スキー場シリーズ)	백은의 잭(白銀のジャック)·질풍의 론도(疾風のロンド)·눈보라 체이스(雪煙チェイス)
시리즈 외	방과후(放課後)·백마산장 살인 사건(白馬山荘殺人事件)·학생가의 살인(学生街の殺人)·11문자 살인사건(11文字殺人事件)·마구(馬具)·교코의 꿈-컴퍼니인 살인사건(香子の夢-コンパニオン殺人事件)·십자저택의 피에로(十字屋敷のピエロ)·조인계획(鳥人計画)·살인현장은 구름 위(殺人現場は雲の上)·브루투스스 심장(ブルータスの心臓)·가면산장 살인사건(仮面山荘殺人事件)·숙명(宿命)·변신(変身)·회랑정 살인사건(回廊亭の殺人)·어느 갇힌 눈 산장에서(ある閉ざされた雪の山荘で)·아름다운 흉기(美しき凶器)·동급생(同級生)·레몬(分身)·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虹を操る少年)·패러렐 월드 러브 스토리(パラレルワールド・ラブストーリー)·천공의 별(天空の星)·옛날에 내가 죽은 집(むかし僕が死んだ家)·비밀(秘密)·백야행(白夜行)·아내를 사랑한 여자(片思い)·호숫가 살인사건(レクサイド)·도키오(トキオ)·게임의 이름은 유괴(ゲームの名は誘拐)·편지(手紙)·비정근(おれは非情勤)·살인의 문(殺人の門)·환야(幻夜)·방황하는 칼날(さまよう刀)·사명과 영혼의 경계(使命と魂のリミット)·새벽 거리에서(夜明けの街で)·다잉 아이(ダイニング・アイ)·유성의 인연(流星の絆)·패러독스13(パラドックス13)·빠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カッコウの卵は誰のもの)·플래티나 데이터(プラチナデータ)·나미야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跡)·몽환화(夢幻花)·공허한 십자가(虚ろな十字架)·라플라스의 마녀(ラプラスの魔女)·인어의 잠자는 집(人魚の眠る家)·위험한 비너스(危険なビーナス)·사랑의 곤도라(愛のゴンドラ)
단편집	탐정 클럽(依頼人の娘)·범인 없는 살인의 밤(犯人のいない殺人の夜)·교통경찰의 밤(交通警察の夜)·수상한 사람들(怪しい人々)·초·살인사건의 추리작가의 고뇌(超・殺人事件 推理作家の苦悩)·그 무렵 누군가(あの頃の誰か)·멋진 일본인(素的な日本人)

위의 작품들 중에서 『비밀』, 『백야행』, 『짝사랑』, 『편지』, 『환야』 등 5개 작품은 ‘나오키상’의 추천작으로 오르기는 했으나 안타깝게 수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9년 『비밀』이라는 작품으로 ‘제52회 일본추리작가 협회회상’을 수상하고, 2006년 『용의자X의 헌신』으로 ‘제134회 나오키상’을 수상하면서 스타작가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방과후>을 비롯한 20여편이 TV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10여 편이 영화로 제작되었다. 『비밀』은 2007년도에 프랑스에서 <더 시크릿(Si j'étais)>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백야행-하

얀 어둠 속을 걷다>(2009), <용의자X>(2012), <방황하는 칼날>(2014) 등이 제작되었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도 <용의자X의 헌신>(2017)이 제작되어 상영되었다. 이와 같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문학이 영화로 매체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문학의 완성도를 확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용의자X의 헌신』의 문학적 위치

히가시노 게이고는 본격추리소설의 작품으로 탐정이나 경찰이 아닌 물리학자 유가와(湯川)가 등장하여 사건들을 논리로써 풀어나가는 ‘갈릴레오 시리즈’라는 시리즈물을 발표하였다. 이 시리즈 안에는 <표1>에서와 같이 『탐정 갈릴레오』(1998), 『예지몽』(2000), 『용의자X의 헌신』(2005), 『갈릴레오의 고뇌』(2008), 『성녀의 구제』(2008), 『한여름의 방정식』(2011), 『허상의 도구사』(2012), 『금단의 마술사』(2012) 등 8작품이 포함된다. 『용의자X의 헌신』은 이 시리즈의 한 갈래로서 물리학자가 사건을 풀어나간다. 이 소설에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물리학자와 맞서는 수학자를 용의자로서 내세워 논리로 대결하는 구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본격추리소설로서 추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풀어나가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sup>7)</sup>

갈릴레오 시리즈 제3탄에 해당하는 『용의자X의 헌신』은 2003년부터 문예지 『올요미모노(オール読物)』에 게재되어 2005년 8월에 문예춘추(文芸春秋)에서 출판되었다. 2008년 8월에는 문춘문고(文春文庫)에 의해 문고화 되었으며, 제6회 본격미스터리 대상, 제134회 나오키상(直木賞)을 수상하였다. 또한 일본 주요 미스터리 랭킹 「주간문춘 미스터리·베스트10(週刊文春ミステリーベスト10)」(2005), 『本格 미스터리·베스트10(本格ミステリー・ベスト10)』(2006), 『이 미스터리가 굉장하다!(このミステリーがすごい!)』(2006)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함으로써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한국에서 『용의자X의 헌신』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2000년대에 한국에서도 총 34권의 작품이 번역·출판되

7) 본격파추리소설(本格派推理小説) 또는本格 미스터리(本格ミステリー), 본격추리소설(本格推理小説), 본격탐정소설(本格探偵小説)이란 추리소설의 장르의 하나이다. 추리소설 중에서도 수수께끼 풀기, 트릭, 두뇌파 명탐정의 활약 등을 주안한 것이다. 또한本格 미스터리이라는 개념·명칭은 일본 독자적인 것으로 영어에서의 puzzler, puzzle story 또는 classical whodunit 등으로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한다. 權田万治 新保博久 監修(2000), 『日本ミステリー事典』, 新潮社. p284

었다. 그의 작품이 출판권수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그만큼의 독특한 이야기 구성과 주제의식을 들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트릭을 푸는 쾌감에 더해 다양한 인간군상을 등장시킴으로써 독자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끌어내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용의자X의 헌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작품은 일본 추리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잔혹함이나 엽기, 호러가 아닌 ‘사랑’과 ‘헌신’이라는 고전적이며 낭만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그는 미스터리적 요소와 대중적인 소재를 조화시켜 장르소설 독자층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층에 이르기까지 호응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sup>8)</sup>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이 끊임없이 한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요소는 추리소설이라는 사건을 푸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가 이끌어가는 서사구조와 이야기에 깔려 있는 감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의 작품은 추리적 논리전개도 흥미롭지만, 이야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제의식을 통해서 보편적 인간의 본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 3. 한·일 감성의 영화적 재현

히가시노 게이코의 『용의자X의 헌신』은 일본에서 2008년 니시타니 히로시(西谷弘) 감독이 <용의자X의 헌신>으로 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2012년 방은진 감독이 <용의자X>로 제작하였다. 일본판에서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원작을 관객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영상물로 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판에서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이 비교적 빠르게 번역되고 있지만, 일본만큼의 탄탄한 지식을 관객들에게 요구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일본판은 원작에 충실하여 각색되어 있지만, 한국판에서는 한국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8) 유재진·나카무라 시즈요·김영란·오혜성·이주희·이진희·민건우(2012)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번역현황과 분석: 1945-2009』 『日本研究』 제17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248-249

9) 한국에서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을 원작으로 <백야행>(2009), <하모니>(2009), <용의자 X.>(2012), <방황하는 칼날>(2014) 등이 영화로 제작되었다. 2012년 당시 흥행기록을 살펴보면 10위권 안에서 범죄를 다루는 작품이 두 편이나 있었다. 각각 1위와 8위를 차지한 <도둑들>,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용의자X>는 원작을 한국적 감성에 맞춘 각색을 통해 110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하였다.

### 3.1. 플롯전개와 감성

#### 3.1.1 등장인물의 재설정

일본에서는 꾸준히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시리즈가 영상물로 방영되고 있었으므로 갈릴레오 시리즈의 연속물로서 <용의자X의 헌신>은 크게 설명이 필요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등장인물의 설정부터 다소 이해가 필요했다. 계속 사건을 풀어가는 유가와라는 물리학자를 한국판에서는 과감하게 이 인물을 제외시켜 버린다. 그리고 모든 수사와 논리는 형사가 직접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재배치는 논리성과 긴장감을 다소 떨어뜨리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대중적 감성을 이해한 감독의 영화적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은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된다.

기자 : 천재 수학자와 천재 물리학자의 두뇌 대결이 중심이었던 원작과 달리 <용의자X>는 물리학자 캐릭터를 제외했다. 대신 물리학자 캐릭터의 일부를 형사에 집어넣음으로써 형사 민범(조진웅)을 만들었다. 자칫 사건의 긴장감이 줄어들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방은진 감독 : 일본에서 만들어진 리메이크작 역시 원작의 구도를 그대로 따랐다. 소설이라면 모든 인물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영화에서 그걸 모두 다루다보면 산만할 수 있다. 누가 더 천재인가라든지 두 천재간의 두뇌 싸움 등은 이미 소설과 일본영화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우리는 다르게 가야겠다 싶었다. 그게 사건 이면에 있는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원작을 처음 읽었을 때 주인공 이시가미의 감정이 엄청나다고 느꼈다. 그의 감정을 훼손하지 않은 채 영화로 표현하고 싶었다.<sup>10)</sup>

한국판에서는 감독이 주인공의 감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스며있는 한국적 ‘감성’을 표현하고자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감독은 인물부터 재설정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영화적 재현을 통해서 보여준다.

10) <http://www.cine21.com/news/veiw/> 김성훈 「내게 없는 것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즐기겠다」 『씨네 21』 2012.10.28.

<표 2> 한·일 등장인물 비교

등장인물	원작(2005)	일본판(2008)	한국판(2012)
이시가미(石神)	수학교사, 주인공	원작과 일치	원작과 일치, 석고역
야스코(靖子)	도시락집 점원, 여주인공	원작과 일치	원작과 일치, 화선역
유카와(湯川)	물리학자, 탐정역할	원작과 일치	등장인물에서 제외됨
구사나기(草薙)	경찰	원작과 일치	모든 사건을 풀어나감. 민법역
미사토(美里)	야스코의 딸	원작과 일치	화선의 조카, 윤아역

한국판은 일본판에 비해 등장인물의 재설정에 따라 스토리 전개도 달라졌다. 첫 번째 차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유가와와 존재이다. 이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탐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가족관계이다. 일본판에서는 야스코와 미사토는 직계인 모녀관계이지만 한국판에서는 화선과 윤아가 이모와 조카관계이다. 이는 각 나라별로 가족을 감성적으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 설정에 따른 스토리는 미묘한 감성의 차이를 나타내며 그려져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3.2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3.1.2 범죄플롯의 재구성

주인공은 옆집의 살인사건을 철저히 은닉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 주인공이 재구성하는 범죄이야기는 양국 문화를 반영한 논리 감성들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은 시체를 강가에 버리는데 이 강까지 어떻게 시체를 옮겼는가에 대한 논리이다. 주인공의 취미생활이 신체단련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원작은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학교 선생님께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취미로서 유도가 설정되어 있다. 일본판에서는 날마다 등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주인공이 등산을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국판은 첫 장면에서 프리다이빙(무호흡잠수)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 한국의 관객들에게 일본판에 비해 훨씬 선명한 논리로 이야기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여자 주인공이 범인의 살인도구로서 일본판에서는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에 맞게 고타쓰(炬燵)의 줄로 목을 조였지만, 한국판에서는 다리미 줄로 목을 조른다. 나라별로 가전제품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배치된 것이다.

범죄의 재구성은 양국의 감성에 따라 플롯이 각각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판에서는 야스코가 전남편 살해 후 이시가미가 찾아오자 ‘바퀴벌레’였다고 이야기하고 문을 닫지만, 이시가미는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다 야스코가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사체가 발견이 된 현장이 나온다. 한국판에서는 화선이 석고가 찾아오자 ‘바퀴벌레’라고 이야기하자 돌아간다. 그 후 다시 찾아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화선의 집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범죄의 은닉을 위해 도와주는 장면이 재현된다.

일본판에서는 이시가미의 범죄 은닉장면은 거의 영화가 끝날 무렵, 범인이 자백을 할 때 이를 보여준다. 일본판에서는 등장인물의 움직임이나 대화가 많지 않고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관객의 상상과 추리 논리전개를 유도한다. 그에 반해 한국판에서는 장면에서 그때 상황들을 설명하고 논리적 추론을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드러내 주면서 관객들이 극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에 젖어든다. 이러한 양국의 감성에 의한 플롯전개는 마지막 장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양국 모두 주인공이 자신이 확실한 용의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일본판에서의 절제된 감정들의 처리는 한국판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판에서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관객들이 풀어갈 수 있는 플롯전개를 펼치지만, 한국판에서는 선명한 원인과 결과로서 관객들의 궁금증을 장면마다 해소시키면서 플롯전개를 펼쳐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질의 차이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질에서 오는 감정들이 영화에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2. 제도에 의한 감성형성

### 3.2.1 탐정제도와 문화적 감성

갈릴레이 시리즈의 공통점은 물리학자 ‘유가와’의 존재이다. 유가와 는 아무리 알리바이가 완벽한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자로서 존

재한다. 유가와와 의 역할은 일반적인 추리소설에서 보자면 탐정의 역할과도 같다. 한국판에서는 이러한 알리바이를 경찰이 모두 해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탐정 문화의 형성과 함께 ‘산업(Industry)’으로까지 발전시켜 왔다.<sup>11)</sup> 그리고 일본의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민간 차원인 일반인이 자신의 논리 감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회원국 등 모든 선진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탐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의 국가들이 공인탐정제도를 채택하여 엄격한 시험과 고도의 훈련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탐정제도가 없다.<sup>12)</sup>



<그림1>일본판에서 탐정역할을 하는 유가와의 등장 장면



<그림2>한국판에서 탐정역할과 형사를 담당한 민범의 등장장면

<그림1>과 같이 일본판에서는 갈릴레오의 시리즈의 유가와가 첫 장면에 등장한다. 이에 반해 한국판에서는 <그림2>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 민범이 등장한다. 한국판에서 탐정을 제외해 버리고 경찰이 수사를 모두 해내는 설정은 한국사회의 탐정제도의 부재에 대한 사회적 문화를 보여 준다. 한국 감독은 이러한 사회적 문화 기반이 다른 점을 인식하여 인물 재배열과 이에 따른 논리적 추리 즉, 관객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모든 범죄는 공권력에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영화의 추리극 대부분이 형사물시리즈로 제작되어지고 있다는 점과 연

11) 강영숙(2014)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한국경찰연구』제13권 제4호, 한국경찰학회, p.5

12) 박종수(2008)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p.129

관지어 볼 수 있다.

### 3.2.2 ‘싱글맘’과 감성적 가족의 범위

원작과 일본판에서 여주인공 야스코는 딸 미사토와 사는 싱글맘이다. 현대 일본의 싱글맘, 혹은 싱글맘 가정의 현실을 묘사할 때, ‘빈곤’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나아가 ‘관계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sup>13)</sup> 일본판 영화에서도 야스코는 도시락집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중학교 딸을 키우는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야스코의 전 직업은 술집종업원이었지만, 지금은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싱글맘으로 그려졌다.

반면 한국판에서는 화선이가 조카 윤아를 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족인 싱글맘은 사회편견에서 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sup>14)</sup> 한국판에서 싱글맘이 아닌 이모가 조카를 부양하는 관계는 일본과 사뭇 다른 감성적 가족범위를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아직 힘든 삶을 영위하는 싱글맘의 자녀보다 이모가 조카를 부양하는 형태의 가족이 더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는 부양하는 가족의 범위가 일본에 비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가치, 예컨대 충효사상과 가족주의 등이 강하였다. 특히, 효(孝)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주의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노인 부양은 사적부양, 특히 가족부양을 통해 해결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업기반의 전통사회는 물리적 이동성이 거의 없는 혈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친인척 간의 부양도 가족부양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sup>15)</sup>

13) 이은경(2017) 『“싱글맘”의 현실과 사회적 관계로의 포섭』 『안전사회 일본의 동요와 사회적 연대의 모색』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11,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43-44

14) 이에련의 연구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가 없는 이유로 온전하지 못한 가족,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낙인과 차별 속에서 살아간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낙인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아들이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설한다. 이에련(2013)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지지를 위한 사회프로그램에 관한 사례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0권 제2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p.103

15) 여유진(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

위와 같이 친인척간의 부양은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문화가 아직까지 사회 속에 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주목받을 때 절실한 관계는 일본판에서 보여주는 모녀사이가 더 감성을 자극한다. 한국판에서 친족관계로 이러한 감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는 공동체적 성격의 사회적 감성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 3.3. 문화적 감성으로서 ‘외로움’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성을 어떻게 그려내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화의 플롯에 따라 주인공의 외로움에 대한 흐름을 구분지어 보았다. 먼저 철저히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소외’된 외로움이 어느 날 ‘사랑’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인공은 갑자기 찾아든 질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신’으로 외로움을 승화시킨다.

#### 3.3.1 ‘소외’ : 혼자라는 외로움

원작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연립주택의 아파트이다. ‘소외의식’을 조명하기 위해 문학이 차용한 것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구조적 특징이다.<sup>16)</sup> 이 작품에서도 소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가족은 부재하다. 등장인물은 혼자 사는 옆집 남자, 이혼한 엄마와 딸이 중심이다.

김옥수(1997)에 의하면 외로움 개념이 가능한 속성은 ①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느낌, ②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결핍되었거나 결핍되었다고 지각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 ③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바라는 것과 실제 간의 불일치 등이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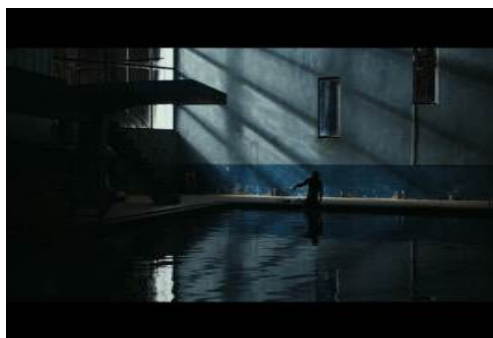
16) 이희경(2012), 「도시문명에 갇힌 인간 소외와 상실감」 『東西言論』 제15집 동서언론학회, p.149

17) 위의 선행조건은 크게 인격적인 특징과 상황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격적 특징으로는 내향적이거나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있으며 상황적인 특징으로는 환경, 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결혼상태의 변화 등이 있다. 가능한 결과로는 사회적 관계나 인생에 대한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우울, 자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경험적 준거로는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또는 외롭다고 지각하거나 표현하는 것, 정서상태의 변화와 건강행위의 변화, 신체적 증상 등이 포함된다.

일본판 주인공 이시가미는 철저히 수학에 미쳐서 사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다. 주인공의 삶에는 철저히 ‘락(樂)’이 결핍되어 있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혼자라는 모습이 더욱 고립되어 가는 모습이다. 김옥수의 외로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면 그가 자살을 그의 삶 속에서 선택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림3> 이시가미의 출근 모습



<그림 4> 석교의 프리다이빙 모습

양국 모두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11월 8일 초겨울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판에서는 이시가미가 <그림3>와 같이 항상 목도리를 칭칭감고 눈만 내놓고 다닌다. 이는 철저한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듯하다. 한국판에서는 주인공 석교가 <그림4>과 같이 프리다이빙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감독이 의도적으로 취미생활과 살인방법에 대한 논리적 설득을 위한 연결이라고 여겨지지만, 일견 외로움보다는 멋진 취미생활로 보여 지기 쉽다. 최근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술 마시는 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그대로 즐기는 문화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외로움마저도 공유해 나가면서 극복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외로움’이라는 정서는 개인주의에 더 익숙해져 있는 생활패턴으로 훨씬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사회를 볼 수 있다.

### 3.3.2 ‘사랑’ : 극복하는 외로움

일본판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이시가미가 자살하

김옥수(1997) 「외로움(Loneliness)의 개념 분석」 『간호과학』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p.35

려는 순간 새로 이사 온 옆집 모녀가 문을 두드려 주었다. 이는 그 후 이시가미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준다. 이시가미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며 이것을 사랑이라 생각하였다. 이시가미는 천재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거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시가미는 수학 천재라 불리는 자신이 고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생의 아쉬움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는 수학과와 번뇌와 외로움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였지만, 한 순간의 옆집 모녀의 인사가 자신을 외로운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었다. 이시가미는 사랑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헌신을 보여준다. 처절한 외로움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처절해지게 한다.

외로움은 욕망의 대상이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외로움의 양태가 다양할지라도 다양함 속에 흐르는 그 사회의 보편의식을 외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공통된 외로움의 발생 원인이 있을 수 있다.<sup>18)</sup>

이시가미는 외로움을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욕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이시가미는 살인을 하게 된 모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자 한다. 일본판에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옆집 모녀를 관리한다. 그러다 어느날 야스코에게 관심을 갖는 남자가 나타나자 이시가미는 질투를 느낀다. 이시가미는 야스코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이자 야스코는 점점 숨이 막힌다. 자신에게 조여 오는 이시가미의 터무니없는 관심은 부담이 되어 간다. 하지만 묵묵히 그가 지시하는 대로 알리바이와 취조에 대답한다.

한국판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석고의 일거수일투족 자신을 감시하는 모습에 숨이 막힌 화선은 어느 날 석고를 찾아가서 화를 내며 따지고 묻는다. 또한 조카 윤아는 석고에게 이모를 좋아하냐고 직접적으로 묻는다.

일본판에서는 유가와가 야스코가 일하는 도시락 집을 이시가미와 함께 가서 이시가미가 야스코를 거울로 슬쩍 슬쩍 쳐다보는 모습으로 사랑을 확인한다.

18) 이철승(2013) 「현대사회의 외로움 문제와 치료의 유가철학」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3집, 한국유교학회, p.199

그리고 용의자의 단서를 잡는다. 한국판에서도 민범이 석고가 화선을 바라보는 눈빛을 유리에 비친 모습으로 사랑을 확인한다. 그러나 한국판에서는 한 가지 더 보여준다. 민범이가 우연히 석고 집에서 발견한 메모지가 도시락집에 있는 메모지와 같다는 것을 알고 메모지에 적힌 글씨체가 화선이의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전화번호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한국판에서는 훨씬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말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판에서는 절제된 감정선의 거리가 유지되어 간다. 한국에서는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은 오히려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절제된 감정은 소통의 단절과 개인생활에 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양국영화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성이 일본판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며 그에 대한 사랑 또한 터무니없이 크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영화의 소비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일본판의 극단적인 감성적 재현으로 흥미는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판에서는 일본보다는 아직까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한국적 감성에서 엿볼 수 있다.

### 3.3.3 ‘헌신’ : 승화하는 외로움

일본판은 영화제목을 원작 그대로 <용의자X의 헌신>이라 하였지만, 한국판은 <용의자X>라고 하였다. 왜 한국판에서는 헌신을 제외했는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영화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유하게 만든다. 주인공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는 감성은 처절한 외로움이라는 감성이 제공한 사랑의 재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헌신’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통할 수 있는지, 질투가 과연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화를 되짚어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감성이 혼란하게 된 점은 바로 영화가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취하는 극단적인 감성해결의 방법으로서의 살인은 ‘사랑’마저 혼란하게 만든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기꺼이 용의자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혹시 여자가 범인으로 잡히더라도 자신이 진짜 살인죄로 잡혀가도록 하였다는 범인의 자백이다. 이는 열렬한 사랑이고 헌신이다.

그러나 플롯전개의 결과와 원인을 살펴보면 주인공은 자수를 한다. 그것은

여자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질투와 질투를 넘어선 배신감이 차올랐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이 이 여자를 위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자문을 한다. 주인공은 자수를하기로 결심한다. 이는 여자에 대한 응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국의 영화적 재현에서 남자의 헌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사유를 만들게 한다.



<그림5> 일본판에서는 야스코가 자수하면서 운다



<그림6> 한국판에서는 화선이가 울면서 송치되는 차량을 따라간다.

위의 그림과 같이 각 영화들의 마지막 장면에서 생각해 볼만 하다. 일본판의 제목에서 ‘헌신’의 단어와 여자가 마지막에 달려와 울면서 자수한 장면이 상응을 한다면, 한국판의 제목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여자가 마지막에 달려와 울지만 자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상응을 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일본판에서는 잃어버린 감성 ‘헌신’을 일깨워주는 데 주력을 하였다면 한국판에서는 ‘헌신’보다는 ‘사랑’이라는 감성으로 다가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의 사회가 ‘헌신’이라는 감성을 잃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 4. 맺음말

이 논문은 원작 『용의자X의 헌신』을 통해 한·일의 영화적 재현을 통해 양국

감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작품이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헌신’과 ‘사랑’이라는 감성을 잃어버린 채 ‘외로움’으로 채워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에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은 원작으로 각 나라의 영상매체로 전환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감성을 비교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판에서는 비교적 원작에 충실한 영화적 재현이 되었지만, 한국판에서는 한국적 감성에 맞게 각색되었다. 첫 번째로 감성에 의한 플롯 재구성의 분석이다. 일본판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암묵적이면서 절제된 감정들을 보여주지만 이에 비해 한국판에서는 훨씬 선명한 감정들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감정들은 추리영화에서 중요한 플롯구성을 통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제도에 따른 감성형성의 고찰이었다. 한국은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형사가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의 부재를 통해 한국의 공권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 모두 싱글맘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모두가 부정적 시각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판에서는 이러한 싱글맘을 이모와 조카사이로 각색하였다. 한국은 직계가 아닌 친족의 관계에서도 가족적 감성으로서 포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는 이 작품에 궁극적으로 깔려 있는 ‘외로움’은 양국 어떠한 문화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일본판에서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주인공의 외로움은 사랑에 대한 헌신이 훨씬 극대화되어 나타나지만, 한국판에서는 외로움마저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사랑에 대한 헌신이 일본만큼 극대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영화를 비교하면 추리영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본판이 더 재미있지만, 한국판은 아직까지 공동체적 의식과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한국적 감성이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영숙(2014)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한국경찰연구』제13권 제4호, 한국경찰학회, p.5
- 김영성(2008) 「추리서사에 반영된 매체적 특성과 대중성」 『비교문학』 제46집, 한국비교문학회, p.164
- 김옥수(1997) 「외로움(Loneliness)의 개념 분석」 『간호과학』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p.35

- 박중수(2008)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4권 제1호, 한국 범죄심리학회, p.129
- 여유진(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
- 유재진·나카무라 시즈요·김영란·오혜성·이주희·이진희·민건우(2012)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변역현황과 분석 : 1945-2009」 『日本研究』 제17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248-249
- 이애련(2013)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지지를 위한 사회프로그램에 관한 사례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0권 제2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p.103
- 이은경(2017) 「‘싱글맘’의 현실과 사회적 관계로의 포섭」 『안전사회 일본의 동요와 사회적 연대의 모색』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11,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43-44
- 이철승(2013) 「현대사회의 외로움 문제와 치료의 유가철학」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3집, 한국유교학회, p.199
- 이희경(2012) 「도시문명에 갇힌 인간 소외와 상실감」 『東西言論』 제15집 동서언론학회, p.149
- 한광수(2002)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노르웨이 숲(ノルウェイの森)」 『국제문화연구』 20권, 청주대학교 국제협력연구원,
- 한기연(1992) 「松本清張 推理小説의 特徴」 『日本研究』 7권,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153-154
- 狩谷新(2012) 「メディアミックスによる小説世界の変化：東野圭吾の主人公描写」 大分県立芸術文化短期大学 研究紀要, 大分県立芸術文化短期大学
- 権田万治 新保博久 監修(2000) 『日本ミステリー事典』, 新潮社. p284
- 難波江和英(2012) 「『容疑者Xの献身』—セクシュアリティの言説という罫」 神戸女子大学紀要, 神戸女子大学
- 東野圭吾(2008) 『容疑者Xの献身』, 文春文庫
- 堀江珠喜(2016) 「東野圭吾と猫」 大阪府立大学紀要, 大阪府立大学
- 増満圭子(2006) 「現代文学が語るもの東野圭吾『分身』論」 東洋学園大学紀要, 東洋学園大学
- 和田勉(2013) 「東野圭吾論」 九州産業大学国際文化学部紀要 第55号, 九州産業大学
- <http://www.cine21.com/news/veiv/> 김성훈 「내게 없는 것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즐겼다」 『씨네 21』 2012.10.28.
- <https://ja.wikipedia.org/wiki/> 참조
- DVD(2009) <容疑者Xの献身> ELACOM
- DVD(2013) <용의자X> CJ E&M

논문 투고 일자 : 2017. 05. 30.
논문 심사 일자 : 2017.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7. 08. 04.

---

 < 要旨 >
 

---

## 韓・日映画の感性の比較

—『容疑者Xの献身』の映画的な再現を中心に—

朱蕙貞

本稿は東野圭吾の『容疑者Xの献身』を原作として韓国と日本でそれぞれ製作された映画を通じて両国の感性を比較・考察した。この作品が韓国と日本で人気があった理由は、'献身'と'愛'という感性を失ったまま、'寂しさ'で埋めている現代人の姿に大きく共感を得たからであろう。同じ原作から、各国の映像媒体に転換された作品を鑑賞することはそれぞれの国の社会的文化的な感性を比較考察することに於いて、とても適切な対象と言える。日本版では比較的原作に忠実な映画的な再現になったが、韓国版では韓国的な感性に合わせて脚色された。本稿では、まず感性によるプロット再構成の分析をしてから、また制度による感性形成の考察をした。そして文化感性として'寂しさ'はどのように各国別で文化を作っているかについて調べた。日本の場合は外部と徹底的に遮断された寂しさが愛に対する献身がはるかに極大化されて現われるが、韓国版の場合は寂しささえも共有したいとする文化的特性によって、愛についての献身が日本に比べては極大化されていなかった。このような点で、両国映画を比較すると、推理映画を消費する立場では、日本版がもっと面白いですが、韓国版はまだ共同体的意識とお互いに共有しようとしている韓国的感性が浮き彫り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 Observing the Different Quality of Emotion Between Japanese and Korean Movies

—Devotion of The Suspect X as a Case Study—

Joo, Hye-Joeng

This study compared the Japanese movie based on the novel *Devotion of the Suspect X* by Higashino Keigo with its Korean equivalent in terms of emotions. These movies were very popular in both countries because the audience could emphasize with the characters who lost devotion and love and felt lonely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visual media produced i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the same novel can reveal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country behind the adaptation. While the Japanese version of the movie was relatively faithful to the original storyline, the Korean version was adapted to satisfy the Korean emotional palate.

This study explored the reasons on the followings: First, it analyzed emotions as a basis for plot change. Second, it examined emotions produced by certain institutions. Finally, it analyzed how loneliness as a "cultural emotion" formed culture and what comprises culture in each country. In the Japanese version, isolation maximized devotion to love, but in the Korean version, devotion to love was not as strong because Korean people even want to share feeling of loneliness. Because of this difference, Japanese version was surely more exciting as a mystery movie while the Korean version still put an emphasis on a sense of community and sharing as a universal Korean emotion.